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세네갈

Republic of Senegal

2023년 10월 16일 | 책임조사역(G3) 김미종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국가개황

일반개황

면적	인구	정치체제	대외정책
197천 ㎢	1,816만 명 (2023f)	공화제	친서방 실리외교

GDP	1인당GDP	통화단위	환율(U$기준)
311.4억 달러 (2023f)	1,715달러 (2023f)	CFA Franc (CFA Fr)	601.80 (2023f)

- 아프리카 대륙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세네갈은 한반도의 90% 면적의 국토와 약 1,816만 명(2023년 추정치)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리타니(북), 말리(동), 기니비사우, 기니(남)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한편, 감비아는 세네갈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음.
- 2014년 정부 주도의 국가·사회개발계획인 세네갈 부흥계획(Plan Senegal Emergent: PSE)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지속하며 연평균 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다만, 2022년 및 2023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료품 및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증가로 재정건전화 프로그램 지연, 세네갈 정부의 다자기구 앞 상환액 증가 등으로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원유·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4년부터는 동 에너지 수출에 따른 수익증가와 2023년 IMF의 확대금융기금을 통한 재정건전화 지속 노력 등으로 연평균 8~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한편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24년 2월 대선관련 국내 야당 지지층들의 산발적 소규모 시위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불안정,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빈곤 심화 및 청년실업 악화는 사회적인 불만을 증폭시켜 반정부 감정의 확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0. 19 수교 (북한과는 1972. 9. 11)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80),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85),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8),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 출	77,465	98,817	89,764	자동차, 섬유제품
수 입	40,744	48,719	51,501	냉동수산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6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9건, 23,190천 달러

경제동향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f
경 제 성 장 률	4.6	1.3	6.5	4.0	4.1
소비자물가상승률	1.0	2.5	2.2	9.7	6.1
재정수지/GDP	-3.9	-6.4	-6.3	-6.6	-5.0

자료: IMF, EIU

2024년 상반기 원유·천연가스 생산 시작으로 중장기 경제전망은 긍정적

- 세네갈 경제는 국가·사회 개발계획인 세네갈 부흥계획(Plan Senegal Emergent: PSE) 추진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로 2014~19년 평균 6%대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및 식료품 국제가격 급등,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말리**에 대한 경제 제재,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지난 3년 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이 지연되어 2022년에는 4% 성장에 그쳤음.

* 1975년 설립된 지역협력기구로, 서부 아프리카 15개국 경제협력과 지역 통합 증진을 위한 경제개발공동체(회원국은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 세네갈의 최대 수출상대국으로, 세네갈 상품수출의 약 19% 점유(2021년 기준, IHS Markit)

- 2023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긴축 재정정책과 2023년 4분기 예정이었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개시의 지연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4.1%)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IMF와 IHS Markit은 세네갈 경제가 원유·천연가스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4년에 약 9.2%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EIU는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농업, 전력, IT, 교통 분야가 2024~27년 평균 6.9%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

[표 1] 주요 기관별 세네갈 경제성장률 전망(%, 2023~24년)

구분	IMF	EIU	IHS Markit	Moody's	Fitch	S&P
2023년	4.1	4.9	8.1	8.5	7.8	8.0
2024년	8.8	7.2	10.3	10.1	9.0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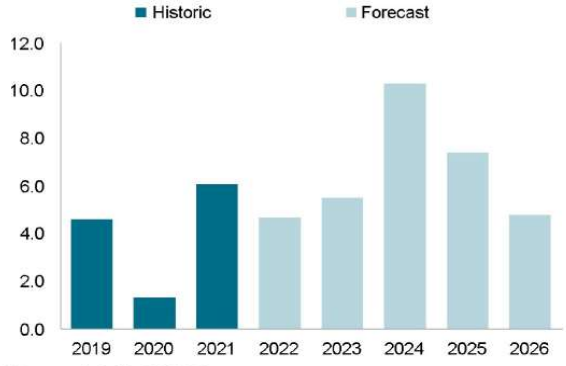
국내경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급등 후 점차 안정 추세

- 세네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 주도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과 자본재 수입으로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2013~21년 평균 0.9%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특히 식료품 및 에너지 수입가격이 급등한 결과 9.7%까지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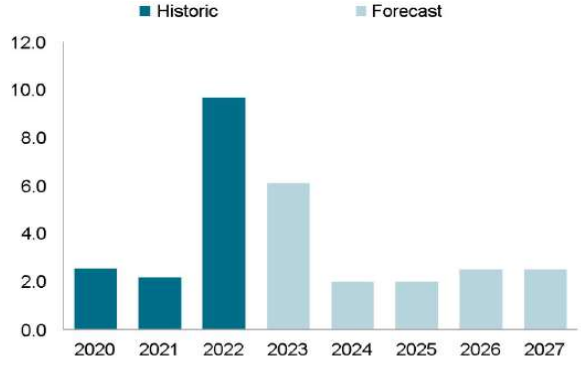
- 한편, IMF는 세네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3년에는 국제유가 안정, 풍작에 따른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6% 안팎으로 안정될 것이며 2024년 석유·천연가스 생산으로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안정화 등으로 2024~27년에는 연평균 2%대로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1] 세네갈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2020~26년)



자료: IHS Markit

[그림 2] 세네갈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 2020~27년)



자료: IHS Markit

정부는 2035년 신흥시장국 진입을 목표로 PSE 3기를 준비 중

- 세네갈 정부는 PSE 1기 5개년 계획(2014~18년)을 마무리하고 현재 2기 5개년 계획(2019~23년)을 시행 중임. 2기 5개년 계획은 전력망,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과 농업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되었던 1기 5개년 계획에 비해 더욱 포괄적인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코자 함.

- 2023년 하반기 PSE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국내 식량 공급 증대, 의약품, 의료 분야에 대한 제3차 우선행동계획(Priority Action Plan 3: PAP3)을 수립하여 함께 추진 중임.

- 마키 살 대통령은 2024년 2월 대선을 앞두고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관련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세네갈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석유 및 천연가스의 자급률을 50%까지 높이는 것임.

- 또한 세네갈은 2026년 청소년올림픽 개최지로 예정되어, Dakar Diamniadio Sports City 프로젝트를 포함한 총 96백만 달러 규모의 관련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국내경제

원유·천연가스 생산 개시로 2024년 이후 공적채무 규모 축소 및 재정수지 적자 개선 예상

- 세네갈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급증으로 인해 2019년 63.6%에서 2021년 73.3%으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는 재정수지 적자, 공공투자 관련 채무 증가, 미 달러화에 대한 세파프랑화(CFA)의 평가절하 등으로 동 비율이 76.6%까지 상승하였음.

- 2022년 기준 공적채무는 다자개발은행 34%, 양허성 차관 18%, 유로본드 22%, 채권 발행 23%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EIU는 2024년 원유·천연가스 생산 개시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 및 경제성장으로 2027년 세네갈의 공적채무는 GDP의 44.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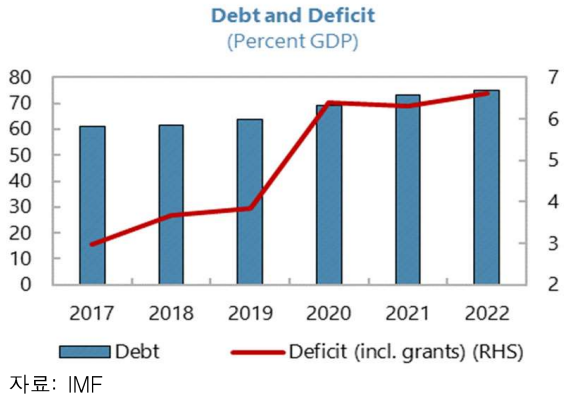
- 2022년 석유 및 식료품 가격 급등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지급 확대, 금리 인상 추세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인해 세네갈의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6.6%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정부 예산에 공공부문의 청년층 대규모 채용으로 인한 21억 달러 규모의 공공임금 지출 증가 및 7억 달러 규모의 식료품 및 에너지 보조금이 포함됨을 감안하여 GDP의 6.1%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됨.

- 한편, 2023년 7월 IMF는 세네갈 앞 15억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기금(ECF, EFF) 및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F)을 36개월 간 지원하기로 승인하였고, 세네갈 정부는 동 자금 지원에 따라 부채감축 정책, 재정건전성 강화 등 2025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까지 축소키로 IMF와 합의하였음.

- 세네갈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위해 2024년 정부 예산에서 보조금 지급을 GDP의 1%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및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세입 증대, 재정 투명성 강화, 석유·천연가스 부문의 수입 관리 등 재정개혁 조치를 통해 재정수지 적자 축소 목표를 달성코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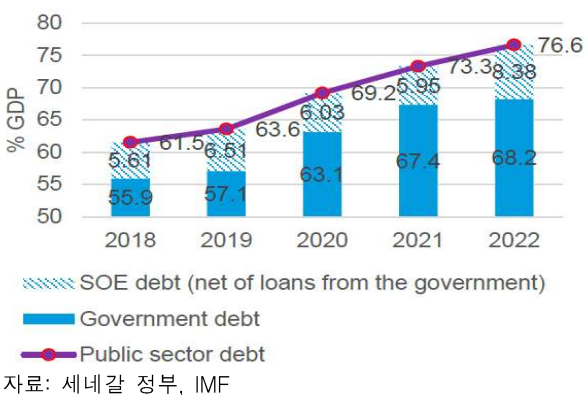
- IMF 및 EIU는 2024년 2월 대선 이후 정국이 안정되면 2024~25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합리화, 보조금 축소, 세수기반 확대 등을 통해 재정합리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세네갈 정부는 2024년 이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개시로 인한 수익 증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24년 3.9%로 낮춘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27년에는 동 비율이 연평균 3.8%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그림 3] 세네갈의 GDP 대비 공적채무 및 재정수지 적자 비중 추이(%, 2017~22년)



자료: IMF

[그림 4] 세네갈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 추이(%, 2018~22년)



자료: 세네갈 정부, IMF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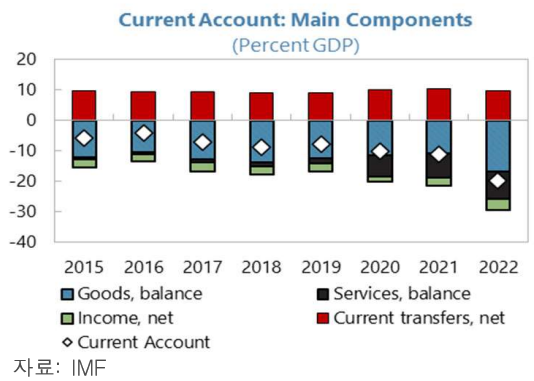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f
경 상 수 지	-1,898	-2,662	-3,327	-5,860	-5,069
경상수지/GDP	-8.1	-10.9	-12.1	-21.1	-16.3
상 품 수 지	-2,880	-2,797	-2,998	-4,749	-3,438
상 품 수 출	4,428	4,189	5,491	5,972	6,130
상 품 수 입	7,308	6,985	8,489	10,721	9,568
외 환 보 유 액	2,911	3,103	4,148	3,875	3,765
총 외 채	16,721	23,286	28,931	29,995	33,023
총외채잔액/GDP	71.5	94.9	104.9	108.1	106.1
D.S.R.	17.3	23.7	25.0	23.1	25.0

자료: IMF, EIU

자본재 수입 증가 및 석유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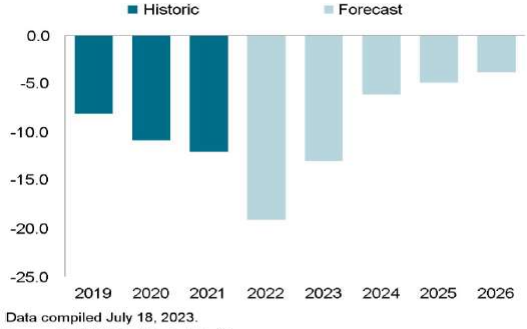
- 세네갈은 식료품 및 석유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여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함.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증가, 미 달러화 강세 및 고금리 추이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에너지 부문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2021년 -12.1%에서 2022년 -21.1%로 급상승하였음.
- 세네갈의 최대 수출상대국인 말리에 대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무역금지 조치('22.1월)의 해제('22.7월), 땅콩 생산량 증가(전년 대비 15%)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개선되어, 2023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1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2024년부터 원유·천연가스의 본격적인 생산으로 상품수출이 증가하고 에너지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중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연 –3에서 –5%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5] 세네갈 경상수지의 주요 구성요소 (GDP 대비 %, 2015~22년)



자료: IMF

[그림 6] 세네갈의 GDP 대비 연도별 경상수지 추이 및 전망(%, 2019~26년)



자료: IHS Markit

대외거래

IMF 이사회, 2023년 7월 세네갈에 대해 15억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공여·확대금융(ECF·EFF)[1] 및 3억 달러 규모의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F)[2] 36개월 간 지원 결정

- 세네갈 정부는 공공채무 급증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충격으로 인한 대외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IMF으로부터 단기적으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ECF·EFF 자금을 지원받아 ①부채감축 정책, ②거버넌스 강화, ③자금세탁 및 테러와의 전쟁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며, RSF 기금은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관련 개혁 정책 시행에 사용될 예정임.

- 한편, 세네갈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보여준 지속적인 고성장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2024년 예정된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개시와 이로 인한 높은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2021년 6월 2일 7억 7,500만 유로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능력이 역내 국가들에 비해 양호함을 입증하였음.

- 동 유로본드의 발행조건은 16년 만기에 고정금리 5.375%이며, 정부는 동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2024년 만기 예정인 유로본드의 70%를 차환하여 향후 원유·천연가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임. 앞서 정부는 2011년(5억 달러), 2017년(11억 달러), 2018년(22억 달러) 각각 유로본드를 발행한 바 있음.

- 2022년 4월에는 국영기업인 SOGEPA[3]가 5억 4,100만 달러 규모의 수쿠크(이슬람 채권)를 발행하였음. 수쿠크 발행 목적은 정부 소유 부동산 및 기타 전략자산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정부가 SOGEPA에 임대한 건물을 매입하는 데 주로 사용할 계획임.

외채상환능력

외채상환능력은 양호(moderate)한 수준이나, 총외채잔액 규모의 지속적 증가로 부채 관리 필요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쌍둥이 적자 지속으로 인해 2018년 이후 70%를 초과하고 있음. 원유·천연가스 생산 개시 지연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되 당초 기대보다는 높은 10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세네갈의 외채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긴축 재정으로 인한 금리 인상, 세수기반 확대 지연, 재정비용 증가, 원유·천연가스 생산 지연 등 재정개혁 계획이 지연된 점을 감안시, 재정 및 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확대신용공여(ECF, Extended Credit Facility), 확대금융공여(EFF, Extended Fund Facility) : IMF의 전통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단기적 경제위기 극복이 목적
2)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F,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Facility) : 2022년 10월 IMF가 도입한, 기후변화 영향 등 중장기적 요인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3) Société Nationale de Gestion et d'Exploitation du Patrimoine Bâti de l'État

외채상환능력

- 세네갈은 유로-현지화(세파프랑)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외채의 약 46%는 유로화 표시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세네갈 정부는 2021년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 미 달러화 표시 채무를 유로화 표시 채무와 교환하였음.

- 외채의 약 52%가 국제기구(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IMF 등)로부터의 자금 및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은행 그룹은 세네갈 앞 25억 달러 규모의 농업, 농촌개발, 교통, 인프라 개발 등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2023년 3월 Casamance, Kaolack, Tambacounda 내 1,000개 지역에 전력 공급을 목표로 1억 2,900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제공하였음. 이어 2023년 4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세네갈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Standard Chartered, Credit Agricole, JP 모건 앞 5.1억유로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 바 있음.

  * 다카르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이자 Ndayane항 심해항만 사업 양허권자인 DP World Dakar SA에 대한 세네갈 정부의 지분을 10%에서 40%로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및 주요 국제기구의 채무상환 유예 및 자금지원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교역 위축,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주요 외화 소득원이 급감한 가운데 보건, 의료, 저소득층 지원 등에 필요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여 최빈국들의 외환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G20, IMF, 세계은행 등은 최빈국을 대상으로 채무상환을 일부 유예하고 긴급자금을 지원하였음.

- G20는 세네갈을 포함한 최빈국들을 대상으로 2021년 말까지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를 통하여 채무상환의 한시적 유예 혜택을 제공함. DSSI는 2020년 5~12월 중 세네갈에 대해 원리금 약 300억 세파프랑(GDP의 0.2% 수준)과 이자 60억 세파프랑의 상환을 유예해 주었으며, 2021년에는 원리금 710억 세파프랑(GDP의 0.5% 수준)과 이자 160억 세파프랑의 상환을 추가적으로 유예해 주었음.

  * G20의 채무유예 대상국은 최빈국(73개)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총 46개국, 약 57억 달러(한화 약 6조 3,300억 원) 부채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함.

- 한편, 유예된 채무들은 2022~27년 중 연평균 약 170억 세파프랑씩 상환될 예정임.

경제구조 및 정책

구조적취약성

해외송금 및 1차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세네갈은 해외 거주 자국민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2013년 이후부터(2019년 제외) GDP 대비 송금액 비율이 9~10%를 유지하였으며 2022년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2022년 기준 GDP 대비 송금액 비율 : 감비아(28.9%), 레소토(23.0%), 코모로(21.1%), 카보베르데(14.1%), 기니비사우(10.4%), 짐바브웨(9.3%), 세네갈(9.1%)

- 세네갈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세계제조업경쟁력지수(CIP index)에서 2021년 기준 154개국 중 102위를 기록하였음. 항목별 비중은 자원기반(74.8%), 중간기술(12.5%), 하위기술(11.4%), 고기술(1.3%) 순으로 자원기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세네갈의 산업개발이 여전히 1차산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2022년 산업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 57%, 제조업 26%, 농업 17%이며, 이중 노동인구의 약 80%가 저생산성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세네갈은 나이지리아와 수단에 이어 아프리카 3위 규모의 땅콩 생산국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약 40%가 땅콩 생산에 참여하고 있음. 땅콩은 오랫동안 주요 수출품이었으나 최근 오염 문제로 인해 일부 해외 시장에서 퇴출되었음.

- 한편, 세네갈은 제조업 인프라 부족, 사업주에 대한 세네갈 노동법의 경직된 규제 등으로 수출가공지역 성장에 제약이 크며 어업, 땅콩, 원예 및 의류 부문은 국제적 품질기준 충족에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세네갈 정부는 생산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 부족과 취약한 산업기반

- 도로, 통신, 전력 등 기본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취약한 성장기반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 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네갈은 세계은행의 2021년도 기업경영환경평가(Doing Buisness)에서 190개국 중 전력공급 부문에서 119위(종합순위 123위)에 그쳤고,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2019 보고서에서도 조사대상 141개국 중 인프라 부문 113위, ICT 채택 부문 115위, 기술 부문 124위(종합순위 11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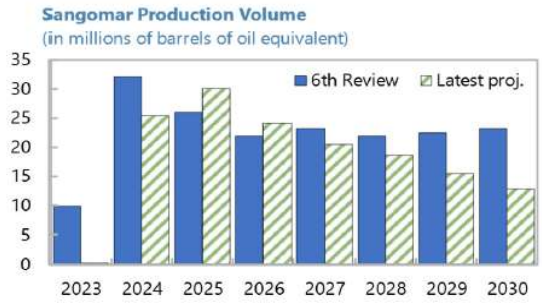
성장잠재력

2024년 중 원유·천연가스 본격 생산 개시 기대

- 2013년까지 소규모 천연가스 생산국이었던 세네갈은 2014~17년 상당한 규모의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이 확인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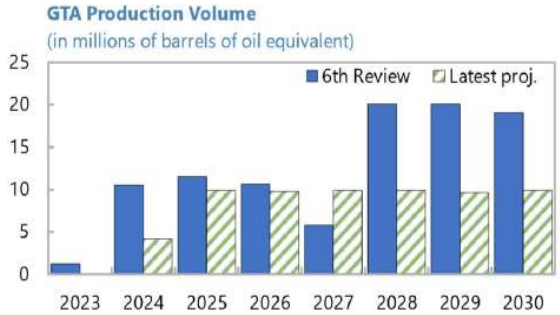
- 현재 Sangomar 유전 프로젝트 Phase Ⅰ은 90% 완공되었으며, 2024년 생산을 개시하여 첫해에 230백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계획임. 한편, Grand Tortue Ahmeyim LNG 프로젝트 Phase Ⅰ도 2024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연간 2.3백만 톤의 LNG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7] Sangomar 유전 phase Ⅰ 예상 생산량(백만 배럴)



자료: IMF

[그림 8] Grand Tortue Ahmeyim LNG 프로젝트 phase Ⅰ 예상 생산량(백만 배럴)



자료: IMF

- 다만, 원유·천연가스 생산 개시가 지연될 가능성과 세네갈 정부의 천연자원 활용 및 세수 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현재 2024년으로 예정된 원유·천연가스 생산 개시 시점은 기존 목표였던 2021년 및 2023년 4분기에서 이미 두 차례나 지연됨. 두 번째 지연은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운반 등 설비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치 못한 운영 문제로 원유·천연가스 생산 개시가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2023년 상반기에 경기둔화 우려로 배럴당 평균 60달러대를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3분기 들어 산유국인 리비아의 대홍수 발생, 연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일평균 100만 배럴 감산 및 러시아의 수출 물량 30만 배럴 축소 등으로 전분기 대비 약 33% 급등(약 90달러대)하였음. 여기에 하마스-이스라엘 충돌까지 겹쳐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국제유가가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성 고조를 감안할 때 향후 원유 및 천연가스 투자 감소 가능성이 있음.

- 세네갈 정부는 원유·천연가스 생산으로 마련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2016년 석유·천연가스 전략위원회(Cos-Petrogaz)를 설립하였으며, 원유(2019년)와 천연가스(2020년)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병행 중임.

-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세네갈의 원유·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서방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독일(천연가스 수입물량의 약 55%가 러시아산)은 2022년 5월 세네갈과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의향을 내비쳤음.

- 세네갈 정부는 발전용량 128MW의 Sambangalou 수력발전소, 발전용량 200MW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2035년까지 총 길이 2,000km의 철도 건설 등 관련 인프라 개발도 추진할 계획임.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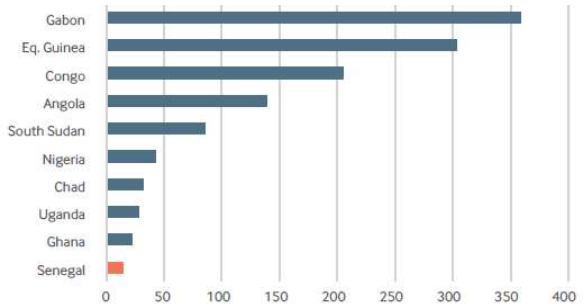
- Fitch Solutions는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투자가 세네갈의 주요 성장 동력원으로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함. 세네갈 석유에너지부 및 BP는 2023년 중 Yakaar-Teranga* 천연가스전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임.

  * 2016년 발견된 가스전으로, 지분 구성은 BP 60%, Kosmos Energy(美) 30%, Petrosen(세네갈 정부 소유 에너지 회사) 10%임.

- 또한, 마키 살 대통령은 PSE에 따른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디지털경제 추진을 위한 5G 투자, 3억 달러 규모의 Sambangalou 댐 건설, 11억 달러 규모의 Ndayane 심해항 건설 등을 추진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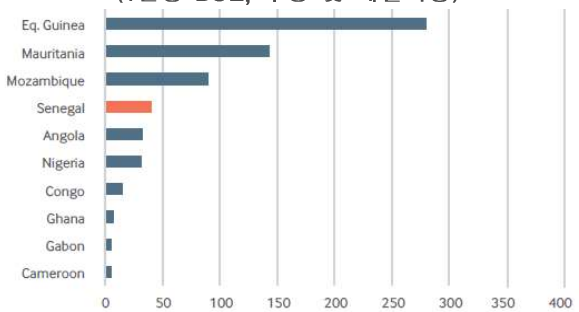
- Fitch Solutions의 Operational Risk Index 2023에 따르면 세네갈은 총점 100점 중 41.2점을 기록,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9개국 중 10위를 차지하며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부상 중임.

[그림 9] 아프리카 주요국 원유 매장량
(1인당 배럴, 추정 및 채굴가능)



자료: Davis & Mihalyi, 2021(Rystad, 2020 재인용)

[그림 10] 아프리카 주요국 천연가스 매장량
(1인당 BOE, 추정 및 채굴가능)



자료: Davis & Mihalyi, 2021(Rystad, 2020 재인용)

금 생산량 증가에 따른 상품수출 증대 가능성

- 서아프리카 지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금 생산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2022년 서아프리카 지역의 금 생산량은 총 413.7톤(세네갈 20.7톤)으로, 세계 제1의 금 생산국인 중국의 생산량(375톤)보다 많음.

- 2020년 이후 동 지역의 주요 금 생산국인 가나, 말리, 부르키나파소에서 쿠테타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으로 금광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해외투자자들이 주변국인 세네갈로 관심을 돌리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일부 국가 중앙은행들의 노력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의 국제가격(2023년 평균 1,900달러/oz 예상)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임.

- 세네갈의 금 생산량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세네갈 금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Sabodala-Massawa 광산의 2021~25년 연평균 생산량은 2020년 대비 67.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금은 2021년 기준 세네갈 상품수출의 5.2%(5위 품목)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 생산 및 수요의 꾸준한 증가는 세네갈 상품수출의 증가를 이끌 전망임.

[표 2] 세네갈 금 생산량 추이(톤, 2013~22년)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생산량	8.2	8.6	8.7	10.2	11.6	16.5	17.3	15.8	20.7	19.7

자료: World Gold Council

정책성과

산업구조 다변화, 에너지 부문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세네갈 부흥계획(PSE) 1~2기 및 제2차 우선행동계획(Priority Action Plan 2: PAP2)의 성공적 이행

- 세네갈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2035년까지 사회적 연대와 법치에 기반한 신흥시장국(emerging market country)의 지위를 획득코자 중장기 국가·사회개발계획인 세네갈 부흥계획(PSE)을 추진 중임.

- PSE는 ①경제 및 성장구조 개편, ②인적자본, 사회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 ③거버넌스, 제도, 평화 및 안보 등을 목표로 1기(2014~18년)와 2기(2019~23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임.

- PSE를 통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농업 개발,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1기(2014~18년) 중 연평균 6.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이는 PSE 시행 이전인 2011~14년 연평균 성장률의 1.8배 수준임. 또한, 세네갈의 빈곤률은 2011년 42.8%에서 2018년 37.8%로 감소하여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WAEMU)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빈곤률을 기록하고 있음.

- PSE 1기는 특히 교통 및 전력 인프라 분야 개선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4)]

- (인프라) 다카르 신공항 개통(2017.12), 신고속도로(총길이 233km) 개통(2018.12), 다카르 고속열차 개통(2019.1), Saint-Louis 등 일부 공항 리모델링 추진, 4개 지역(Touba, Kaffirine, Kedouogou, Sedhiou)에 지역병원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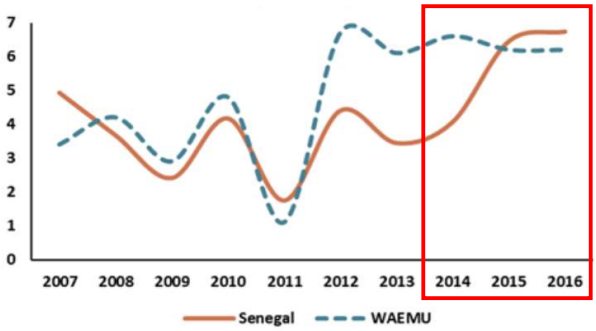
- 현재 진행 중인 PSE 2기는 인적자본 개발 및 민간부문 투자 유치를 위한 친기업 정책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행률은 80%에 달함.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로는 2026년 개항 예정인 은다얀(Ndayane) 첫 심해 항구, 2022년 생루이스 신항만 개항 등이 있으며 도로, 철도, 교육, 의료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2023~27년 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됨.

- (전력생산량) 2012년 500MW에서 2022년 1,787MW로 4배로 증가

- (농업) 벼(paddy rice) 생산량은 2012년 469,649톤에서 2022년 1,409,120톤, 땅콩 생산량은 2012년 692,572톤에서 2017년 1,405,233톤으로 각각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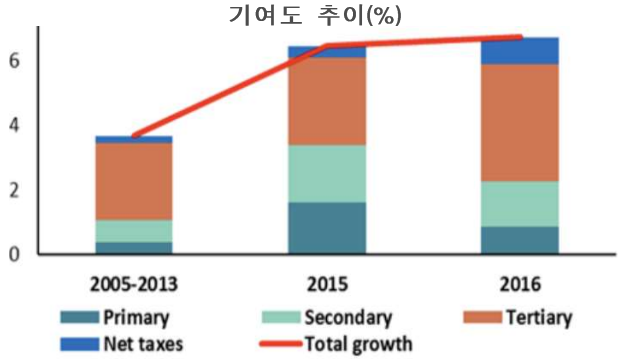
- (산업) Diamniadio 지역 포함 4개 지역에 대한 특별경제구역 설립 및 산업 신도시 건설 결정

[그림 11] PSE 시행 후 세네갈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세계은행

[그림 12] PSE 시행 후 세네갈 산업별 GDP 기여도 추이(%)



자료: 세계은행

4) 외교부. 2020. 세네갈 개황, pp. 53~55.

정치·사회안정

정치안정

현직 대통령의 3선 포기, 야당 유력 후보의 체포 등으로 2024년 2월 대선 관련 불확실성 증가

- 유력 야당 PASTEF의 대표인 우스만 송코(Ousmane Sonko)의 성폭행 혐의 관련 체포 후 빈번했던 반정부 시위와 소요 사태는 지난 7월 마키 살(Macky Sall) 현 대통령이 3선 도전 포기를 선언하면서 후 감소하였음.

- 2022년 7월 31일의 총선에서 살 대통령이 소속된 BBY(Benno Bokk Yakaar) 연합이 선거 후 야당 의원들과의 연합 구성으로 간신히 과반수를 유지한 상황으로 미루어 2024년 대선은 야당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우스만 송코는 성폭행 혐의로 자택 연금 중이었으나 2023년 7월 말 내란 선동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송코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함에 따라 세네갈 정부는 PASTEF 해산을 명령하고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지속 중임.

- 우스만 송코의 2024년 대선 출마는 어려울 전망인 반면, 부정부패 혐의로 대선 출마가 배제되었던 야당의 유력 후보 2명(Karim Wade, Khalifa Sall)이 사면되면서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됨.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음

- 세네갈은 1960년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이후 현재까지 군사정변 없이 민주적 선거에 의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유지하며 아프리카 내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평가받음.

- 2022년 세네갈은 Mo Ibrahim 재단이 발표하는 아프리카거버넌스지수(IIGA)[5]에서 안보, 법규, 투명성, 책임 부문에서 높은 점수(62.4점/평균 48.9점)를 받으며 아프리카 54개국 중 9위를 차지함.

- 2022년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2년 총선 과정에서 주요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있었음에도 야당이 승리한 결과를 반영한 '선거과정' 점수가 큰 폭으로 개선되며 평균 5.72점을 기록(2021년 5.53점)하였고, 순위는 전체 167개국 중 88위에서 9 단계 상승한 79위를 차지함.

- 세네갈 차기 정부는 2024년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IMF 확대금융 협정에 따른 거시경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선거 후 친기업 정책, 인프라 개발 지속 및 빈곤 감소 관련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표 3] 2022년 세네갈의 EIU 민주주의 지수[6]

선거 과정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총점	순위(167국)
6.58	5.71	4.44	6.25	5.59	5.72	79

5)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2007년부터 2년에 한 번 아프리카 대륙 54개 국가의 안보, 공정성, 권리, 경제적 기회, 의료 등 다양한 부문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측정한 지표로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거버넌스가 안정된 것으로 보임.
6) EIU 민주주의 지수는 다원주의,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 영역으로 구성되며, 선거과정과 다원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선거를 실시하고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함.(10점 만점, 높을수록 민주주의 정도가 높음)

정치·사회안정

사회안정

청년층 인구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나 양질의 일자리, 인적자원 개발은 여전히 미흡

- 세네갈은 높은 출생률(여성 1명당 3.9명)과 대가족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청년층 인구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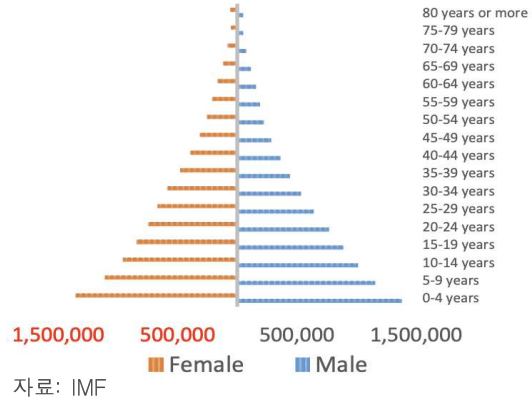
- 전체 인구의 약 60%가 25세 미만이며, 노동인구는 매년 2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속도는 낮아 높은 청년실업률과 빈곤율로 인하여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이는 청년층의 반정부 정서를 격화시켜 전국 단위의 반정부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음.

- 전체 노동인구 중 10%, 청년층 인구의 5%만이 공식적으로 고용된 상황이며, 전체 실업자 중 청년이 1/3 이상을 차지함. 또한, 노동인구 중 숙련된 노동자 비율은 10.8%로 매우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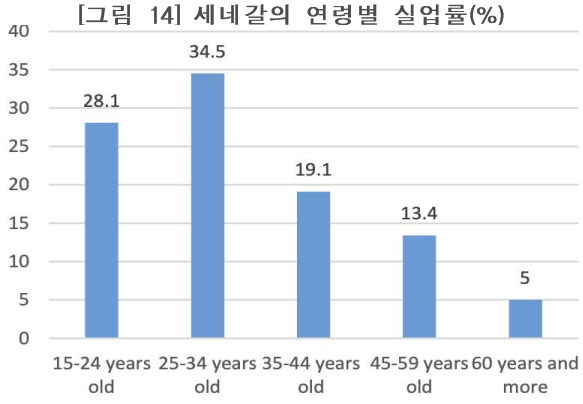
- 이에 세네갈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임. PSE 및 PAP를 통해 각각 15만, 20만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장기적(2018~30년)으로는 청년층 앞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이고 남녀 고용률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 중임.

[그림 13] 세네갈의 연령별 인구분포(명)



자료: IMF

[그림 14] 세네갈의 연령별 실업률(%)



자료: IMF

최근의 견조한 경제성장 지속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

- 세네갈의 2022년 UNDP 인간개발지수(HDI)는 0.511로 조사대상 191개국 중 170위로 최하위권에 속하였으며, 절대 빈곤층(소득 1.9달러/일 미만)의 비율은 38.5%에 달함.

- 교육수준은 평균 정규(학교)교육 기간이 2.9년(여성 1.6년, 남성 4.5년), 문자해독률은 약 48%로 낮은 수준임.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비공식 부문의 고용이 전체 고용의 85%를 차지하며, 가계소득은 유럽 등 외국에 취업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편임.

- 특히 빈곤은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청장년층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여 빈곤층 노동자의 비율이 2019년 28.9%에서 2020년 30.2%로 증가하는 등 전체 가구의 85%가 소득 감소를 경험하였고 최소 30만 명이 빈곤에 내몰린 상황임.

사회안정

2022년 초 카자망스 지역 폭력 사태가 재발하였으나, 평화협정 체결 후 국내 안보위험 완화

- 1970년 이후 경제난과 가뭄으로 인해 북부의 올로프(Wolof) 부족 주민들이 토지가 비옥한 남부 카자망스(Casamance)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토착민인 디올라(Diola) 부족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1980년대 들어 카자망스 지역의 항구 도시 Ziguinchor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음.

- 1990년 카자망스 지역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카자망스 민주세력운동(MFDC)이 결성되고, MFDC는 무장 반군을 조직하여 1992년 8월 대정부 게릴라전을 시작하였음.

- 2021년 6월 세네갈 정부군이 MFDC 반군의 주요 기지를 점령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게릴라전의 재발 가능성이 낮아진 듯 하였으나, 2022년 1월 MFDC 반군에 의해 세네갈 군인 4명이 살해되고 7명이 인질로 잡히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이에 세네갈 정부는 3월 13일 MFDC 반군 격퇴 작전을 개시하여 감비아 국경 근처의 MFDC 기지 여러 곳을 파괴, 점령한 결과 MFDC 중 가장 활동적인 파벌(지도자는 Salif Sadio)이 크게 약화됨. 이 폭력 사태로 2022년 3월 15일 기준 2,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음.

- 한편, 세네갈 정부는 2022년 8월 MFDC 반군의 또 다른 파벌의 지도자 Cesar Badiate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5월에도 평화협정을 위한 중개가 진행되는 등 폭력 사태 위험은 낮음.

- 이밖에도 최근 말리 남서부 지역의 알카에다 연계 조직들이 세네갈 국경 근처에서 주둔함에 따라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에 의한 테러 공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세네갈 정부는 수도 다카르 내의 주요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동부 및 남부 지역 대테러 전문 부대를 배치하는 등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15] 카자망스(Casamance) 지역 전도

사회안정

Moody's는 세네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는 세네갈의 높은 부채와 낮은 부(wealth)의 수준이 환경 및 사회적 회복에 장애물으로 작용하는 점과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점을 감안, 세네갈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2.9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 대상 144개국은 1등급 12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6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4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2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6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0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열 스트레스(heat stress)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안전하지 않은 식수에 노출되어 있어 수질의 위험도 매우 높은 편임. 또한 전체 고용의 30%가 농업 부문에 편중된 상황이 환경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를 더욱 심화함에 따라 환경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높은 총부양비와 낮은 중등교육 등록률을 포함한 취약한 교육지표, 낮은 전력 사용량(전체 인구의 67%만이 전력에 접근 가능) 등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출이 매우 높은 편임. 아울러 전체 고용의 85%가 비공식 고용형태로 노동시장이 취약하며, 해외 취업 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GDP의 약 10%)받아 가계 소득의 의존도를 높임에 따라 사회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정책 협력 프로그램과 IMF의 기술적 지원으로 시행한 지배구조 개혁, 세계은행의 세계지배구조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에서 보여준 부패 관리와 정치 안정성 부문의 견고한 순위를 바탕으로,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3등급)으로 평가됨.

[그림 16] 세네갈의 ESG 신용영향평가점수

자료: Moody's

[그림 17] 세네갈의 ESG 요소별 점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자료: Moody's

국제관계

과거의 식민종주국인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 등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 모색 중

- 세네갈은 국민의 약 96%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이지만 146년 간의 프랑스 식민 통치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 중에서 프랑스와 가장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는 세네갈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세네갈에 대한 최대 원조 공여국으로 경제, 금융, 군사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함.

- 2022년 기준 프랑스개발청(AFD)은 세네갈에 대해 유·무상 형태로 총 16억 유로 규모의 10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음. 주요 지원 부문은 인프라 및 도시개발(31.2%), 상수도 개선·개발(16.8%), 농업 및 식량안보(12.1%)으로 구성되어 있음.

- 1974년 3월 프랑스와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다카르 인근에 프랑스 육·해·공군 기지를 두고 있으며, 세네갈 내 350여명의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음.

- 통신, 대형 유통업, 은행, 건설, 항만, 호텔 및 관광 등 세네갈의 서비스 부문에 다수의 프랑스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입찰, 수출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음.

- 2023년 6월 프랑스가 개최한 New Global Financing Pact 회담은 프랑스의 녹색외교를 강화하여 국제개발원조 자금 조달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회담으로, 세네갈은 IPG[7]와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27.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는 JETP[8] 협정을 체결하였음.

- 세네갈은 IPG와 JETP 협정을 맺은 4번째 국가(앞선 3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로, 향후 1년 간 IPG와 기후변화 대응 관련 2030년까지 세네갈 전력 생산의 4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세네갈의 신흥시장국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세울 예정임.

- 이처럼 프랑스는 여전히 세네갈의 경제·정치·군사 부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네갈은 非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지난 10년 간 동맹 다변화를 모색한 결과 최근 중국,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이 중점협력국으로 부상 중임.

- 2019년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WAEMU)은 8개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공용 화폐인 세파프랑(CFA Franc)을 새로운 공용 화폐 에코(Eco)*로 대체하는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점진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 세네갈은 외환보유고의 절반을 프랑스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프랑스 재무부로부터 매년 0.75%의 금리와 자국 통화에 대한 보증을 받아왔으나, 에코가 출범하면 해당 의무조항은 폐지될 예정임. 다만, 유로화에 대한 고정환율과 프랑스의 무제한 태환성 보증은 유지될 계획임.

* 에코는 당초 2020년 말 출범 예정이었으나, 2020년 초 단일통화 이름으로 에코를 사용하는 결정에 대한 서아프리카 6개국(감비아,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반대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출범이 2027년으로 연기된 상황임.

7) International Partners Group, 프랑스, 독일, 영국, EU, 캐나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관련 자금·기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체
8)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정치·사회안정

국제관계

역내 회원국 및 인접국과도 평화유지 활동을 통한 협력관계 유지

-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1975년 창설), 아프리카연합(AU, 2001년 창설), 서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WAEMU[9], 1994년 창설)의 회원국으로, 이들 협력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세네갈은 ECOWAS의 창립 회원국으로 코트디부아르 내전(2002~08년)과 라이베리아 내전(2003~08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말리에 평화유지군을 파견(2017년)하는 등 역내 평화유지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특히, 카자망스 지역과 근접한 감비아, 기니비사우와의 협력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임.

- 세네갈 영토 내부에 위치한 국가인 감비아와의 관계는 감비아의 독재자 야히야 자메(Yahya Jammeh) 대통령이 2017년 1월 세네갈 주도의 군사 개입으로 축출되고 아다마 바로우(Adama Barrow) 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급속히 개선되었음. 2017년 3월에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정상회담을 정례화하였고, 현재는 대규모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통하여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음.

- 기니비사우와는 1998년 내전에 병력을 파견하여 개입하고, 2003년 쿠데타 발생 당시 세네갈의 압둘라예 와데 대통령이 민간 정권 이양을 중재한 바 있으며 2020년 이후 군사 협력이 증가하였음.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 강화

- 세네갈은 2015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함께 예멘 내전에 개입, 병력을 파견하며 지원하였고, 2017년 8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대 카타르 단교 사태*에도 합류하였음. 이를 통해 세네갈 정부는 PSE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산유국들로부터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의 침투 및 테러 활동에 대한 대응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지원도 받음.

- 사우디개발기금은 세네갈의 25개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총 27건의 대출(약 4억 4,700만 달러)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9월 다카르에 12km의 왕복 2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6,300만 달러 투자, 제2해수 담수화 시설 지원, 양국 공동 위원회 협약, 양국 상공회의소 협력 등 양자간 다수의 협약을 체결함.

- 2021년 1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영공과 국경을 개방하기로 하는 등 외교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2021년 6월 28일에는 세네갈 대통령이, 이어 2021년 7월 1일에는 세네갈 외교장관이 세네갈 주재 카타르 대사를 만나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에 대하여 논의함.

* 2017년 6월 카타르가 이란 및 무슬림형제단을 옹호하고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바레인 등 아랍 지역의 일부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카타르와 국교 단절을 선언하고 여타 지역의 일부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도 동참함. 그러나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3년 7개월 만에 영공과 육로, 해상 국경 개방에 합의하였고, 카타르는 이를 기점으로 걸프 국가들과의 외교 위기를 단계적으로 해결하였음.

9) 프랑스어로는 UEMOA(Union Economique et Monétaire Ouest Africaine)

외채상환태도

파리클럽의 공적채무 탕감 및 G20의 채무 리스케쥴링(DSSI) 수혜

- 세네갈은 파리클럽으로부터 2차례(2000년 10월 2,200만 달러, 2004년 6월 1억 2,700만 달러) 공적채무를 탕감받음. 이는 인근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며, 2004년 이후 외채탕감 경험은 없음.
- G20은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의 급박한 유동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발족하여 모든 양자 간 공적대출을 대상으로 한 원리금 상환 기간을 2차례(2020년 12월 말, 2021년 12월 말) 연장해줌. 이에 따라 아프리카 DSSI 수혜국인 세네갈은 단기상환 부담이 유예되면서 재정여력 확보가 가능해짐.
- 2023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세네갈의 외채규모는 약 40억 2,520만 달러(단기 6,080만 달러, 중장기 39억 6,440만 달러), 연체액은 770만 달러로 연체비율(약 0.2%)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으로 평가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23.10)	5등급 (2022.10)
Moody's	Ba3 (2023.03)	Ba3 (2022.03)

Moody's는 세네갈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 OECD는 2023년 10월 CRE 회의에서 세네갈에 대해 기존의 5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Moody's는 2017년 4월 세네갈의 신용등급을 B1에서 Ba3로 상향 조정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2023년 3월 단기간 내 원유·천연가스 생산 개시로 인한 경제성장 촉진 및 재정수익 증가로 정부 채무 부담 완화 예상, 재정 건전화 노력 등을 고려하여 등급 전망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함.

종합의견

- 국가·사회 개발을 위한 세네갈 부흥계획(PSE) 1~2기의 추진 결과 2014년 이후 연평균 6~8%대를 기록하던 세네갈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및 2022년 러-우 전쟁의 여파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원유·천연가스 생산개시로 이전보다 높은 연평균 9%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5년 간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 추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GDP 대비 공적채무 비율이 2001년 54.8%에서 2022년 76.6%까지 상승하였고, 식료품·에너지 가격 상승, 투자관련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역시 증가 추세임. 다만, 2024년 원유·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면 수출 및 수익 증가로 재정·경상수지 적자 모두 점차 축소되어 중기적으로 GDP 대비 3~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24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였던 야당 대표(우스만 송코)의 기소로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 야당 대표의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주변국들의 쿠테타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됨.